



내일부터 파업 찬반투표 돌입



YTN 낙하산 구본홍 사장이 지난 15일 아침 남대문 YTN 타워에 출근하려다 조합원들의 저지로 들어가지 못한 채 돌아가고 있다.(첫번째 사진 왼쪽이 연합 13기 출신 조승호 기자)

21~23일 본사 노조 사무실서 투표 조합원 80% 참여, 80% 찬성 목표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가 21일(화)부터 '언론 독립과 YTN 사수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이번 파업 찬반투표는 23일(목)까지 사흘 간 진행되며, 장소는 본사 6층 노동조합사무실이다.

앞서 전국 13개 지역 취재본부와 해외특파원 조합원들은 지난 16일부터 부재자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연합뉴스지부 뿐만 아니라 전국 110여개 언론노조 지.본부.분회 별로 동시에 진행된다.

언론노조는 이미 2000년 산별 조합으로 전환했다. 따라서 파업 찬반투표 가결 여부는 개별 지부의 결과가 아니라 전체 사업장 합계로 결정된다.

지부 투표 결과는 공표되지 않고 언론노조 중앙집행부에 통보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합뉴스지부의 투표 참여율은 매우 중요하다. 연합뉴스지부는 언론노조에서 5대 사업장에 포함되는 대형 지부다.

언론노조 집행부는 '80% 참여, 80% 찬성'의 압도적 지지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전체 언론노동자들의 충분한 파업 의지가 결집돼야만 언론독립과 YTN 사수라는 중대 전선에서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파업 의제는 다섯 가지다. YTN 낙하산 구본홍 반대와 공정방송 사수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제이고, 다음으로 ▲지상파 방송 장악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악 반대 ▲조중동 방송을 위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반대 ▲지역신문 다 죽이는 신문관련 법안 개악 반대 ▲지역.종교방송 생존대책 없는 민영 미디어랩 반대 등을 내걸었다. 사실 이번 파업 찬반투표는 지난 7월 17일 언론노조 대의원회에서 이미 결의된 사안이다.

언론노조는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촛불 정국을 타고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책동을 저지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결의해놓은 상태다. 이후 KBS 사태와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탄압 등이 있었지만 언론노동자들이 쉽게 행동에 나서진 못했다.

하지만 현직 언론인 6명을 해고한 이번 YTN 사태는 전체 언론계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전국 언론사 노조에서 YTN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성명이 잇따랐고 출입처기자단까지 이에 동참했다. 한국기자협회는 국제기자연맹(IFJ)과 공조해 실사단 파견을 앞두고 있다.

28년 만에 자행된 5공식 언론 학살에 대다수 언론 노동자들이 치를 떨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을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당성은 충분하다. 물론 이번 파업 찬반투표는 근로조건을 내건 것이 아니고, 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불법.합법 여부를 떠나 동료 언론인들에 대한 부당한 폭거에 저항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중대한 직무유기로 남을수있다.

파업 찬반투표는 그 결과 자체만으로도 낙하산 구본홍과 언론 장악을 시도하는 정권에 막대한 타격을 가할 것임이 틀림없다.

실제 쟁의행위 돌입 시기는 언론노조 집행부에 위임돼 있다.

YTN에 공권력이 투입돼 90일 넘게

출근 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을 강제 해산할 경우나 이미 경찰에 고발된 YTN 노조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화될 경우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로서는 파업 찬반투표 가결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YTN 조승호 기자에게 힘 보태러 갑시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400여 조합원들의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이 100일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7월17일 30초만에 날치기 주총 통과로 사장 자리에 앉은 낙하산 구본홍은 90일 넘도록 남대문 YTN 타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 YTN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7시50분부터 1시간 가량 남대문 사옥 후문 앞에서 출근 저지 집회를 열고 있다. 한여름 뉘약벌에서 시작한 집회는 석 달을 넘겨 싸늘한 가을 바람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YTN 출근 저지 집회는 특별한 형식 없이 조합원들의 자유발언과 외부 지원자들의 지지 발언으로 꾸러지고 있다. 바쁜 아침 시간이지만 잠시 시간을 쪼개 YTN 조합원들의 투쟁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줄 것을 제안한다. 특히 연합뉴스 조합원들의 지지는 한때 가족 회사였던 YTN 조합원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집회에선 반가운 얼굴을 만날 수 있다. 연합 13기 출신인 조승호 YTN 기자이다. 조 기자는 지난 6일 청천벽력과도 같은 해고를 당했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조승호 기자는 그러나 곳곳이 후배들을 이끌며 투쟁전선에 나와있다. 조 기자에게 다가가 건네는 연합 가족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전국언론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직후인 24일(금) 오후 7시 YTN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프레스센터 앞에서 집결해 남대문 YTN 사옥까지 촛불 행진을 하고 언론인 시국선언 전국대회를 연다. 연합 조합원들은 빠짐없이 24일 저녁 YTN 앞으로 집결하도록 하자. 연합 노조 집행부는 YTN 해고자 후원운동에도 적극 동참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파업 찬반투표 집행부 한마디

“YTN 사태 연합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 김정선 노조 부위원장

한 건물에서 오가며 얼굴을 마주쳤고 출입처에서 봤던 선후배들을 회사가 내쳤다는 소식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건물을 떠난 뒤에도 취재 현장에서 만나면 누구보다도 반갑게 인사를 주고 받았던 그 선후배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함께’ 걱정하고 격려하는 많은 ‘동지’(同志)가 있음을 서로 잊지 마시길...

▼ 민영규 노조 부위원장

한때 같은 회사, 같은 가족이었던 YTN에는 지금도 연합뉴스 출신의 사우들이 많이 재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해고자 명단에도 연합뉴스 출신인 조승호 차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과거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였던 연합뉴스 노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게다가 YTN 사태의 결말은 향후 연합뉴스의 지형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독립과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YTN 노조에 연대의 박수를 보냅니다.

YTN 사수를 위한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 결의가 우리의 동지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성연재 노조 사무국장

연합식구라면 누구나 YTN에 대해 남다른 애착함이 있을 것이다. 나 또한 그렇다.

대구지사 근무시절 우리회사 15기인 YTN 대구 주재 한 선배가 몇달째 월급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해 하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 했었다. 그 후 IMF도 잘 견뎌내고 사육도 마련해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한 것이다. 낙하산 사장이 내려오더니 잘 나가던 언론인 6명을 해고해 버리다니..

마치 옛날 낡아빠진 흑백 TV뉴스를 접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이 시대를 역행하는 만행을 바로 잡는 길은 언론인들의 뭉일 수밖에 없다. 마치 20년전 선배들이 해 온 것처럼 YTN 사수를 위해 전국언론노조가 함께 강력히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송경수 노조 총무부장

IMF 때 7시 출근, 밤 11시 퇴근으로 회사 살려내던 것 옆에서 다 보았습니다.

백방으로 현장을 뛰며, 언론의 역할을 일깨우던 돌발영상도 다 보았습니다.

YTN을 YTN으로 만든 이 사람들을 누가 쫓아내려 합니까?

오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떠나야 합니다.

YTN 조합원 여러분 힘 내십시오!
정당한 싸움!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 이봉석 노조 교육부장

정부는 YTN사태에 대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민간기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YTN은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사회의 공기(公器)인 언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 어느날 갑자기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인물이 자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회사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피땀을 흘려온 구성원들의 밥줄을 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YTN문제는 한 회사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론계 전체,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YTN 언론동지들의 건승을 빌며 힘을 보태고자 한다.

▼ 김중배 노조 조직부장

YTN 선후배 동지 여러분들의 앞선 투쟁과 언론노조의 연대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회사와도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 YTN 기자들의 대량 해고사태는 언제든 우리 모두를 노릴 수 있는 ‘독수’에 의한 것임을 직시

해야 합니다. YTN 노조가 자리한 곳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황산벌’과도 같습니다. 적어도 언론만큼은 일방적 권력의 횡포와 자본의 논리에서 자유로운 해방구로 남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고미혜 노조 선전부장

연합뉴스와 YTN의 특수관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번 YTN의 노조원 해고와 무더기 징계는 같은 언론인으로서도, 같은 노동자로서도 좌시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대선배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언론자유가 20년 이상 시계를 거슬러 올라간 듯 합니다. 노조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경영진의 지극히 부당한 조치는 결국 경영진의 정당성 없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사필귀정의 평범한 진리는 이번 사태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정의의 승리를 위해,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 사수를 위해 오늘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YTN 노조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그때까지 저도 몸과 마음으로 지지를 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울 노조 여성부장

항상 함께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켰던 YTN 선.후배님들이 결국 전 언론계를 대표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의 마지막 골리앗이 되고 계시다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며칠 전 날아온 대규모 해고.징계리스트와 그 안에 낫익은 이름들을 보고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눈물도 났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고 험한 꼴 여러번 봤지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정말 이러면 안되는 겁니다. YTN 노조의 싸움에는 전 언론노동자가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월급이 끊긴 동료들을 위해 사내 모금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외로도 확대했다면 좋겠습니다.

▼ 이재현 노조 지방부장

현직 기자의 신분이기 이전에 국민 의한 사람으로서 이번 YTN 기자 해고 사태는 한국언론 사상 초유의 참사가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이번 참사를 겪은 YTN은 연합뉴스와는 한 때 한가족이었던 언론사인데다 해고된 6명 중 1명은 전직 연합뉴스 출신 기자인 만큼 남의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한 안타까움과 충격은 더욱 배가되고 있으며, 더 이상 정부의 언론 장악을 바라만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열악한 여사우 휴게실 ‘이런데서 쉴 수 있을까?’

여사우들이 힘든 업무 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 있을까?

본사 8층에 있는 여사우 휴게실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총무부 여사우를 통해 문을 연 여사우 휴게실에는 여기저기 뒤엉킨 듯 자리잡고 있는 시커먼 1인용 소파들과 테이블들 그 사이에 고작 하나 있는 싱글베드 하나 그리고 간신히 받을 뻔할 수 있는 소파 하나가 달랑이었다.

실상 야근 등을 하고 수면이 부족한 사원들에게 눈을 붙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용도였는데 현재의 시설로는 이같은 수요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많은 여사우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는 이같은 여사우 휴게실을 개선하기 위해 총무부와 다양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첫째, 모든 집기를 들어낸 뒤 공간 1/2에 마루를 깔고 온돌 판넬을 장치하는 방법.



17일 오후 8층 여사우 휴게실이 쓸모없는 가구들로만 가득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라쿠라쿠 침대 형태의 독립적인 소형베드를 3-4개를 설치하는 방법.

마루를 깔게 되면 회사 직책상 선배나 부장이 자고 있으면 감히(?) 옆자리에 눕기 힘들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노조는 이와 함께 3층 숙직실의 활

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사측과 협의중이다.

특히 남사우들의 경우 몸을 펼 수 있는 사우나 의자 등을 마련하면 직급과 관계없이 별 부담없이 개별적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사우나 의자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협의중이다.